

가채점 총평

김기철 관세사

2026년 7월 2일

1. 개관

올해 기출문제는 지엽적인 호해설서의 내용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문제는 주 규정을 단순하게 기술하도록 요구하는 단순 암기형 시험을 유지하였습니다. 수험생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가채점 결과는, 이번 시험에서 어떠한 학생이 실질적으로 점수를 획득할 것인지 그 기준을 파악하는 데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2. 가채점 결과 분석

가채점 대상인 10명의 답안을 문항별로 분석해 본 결과, 매우 명확한 득점 기준이 관찰되었습니다.

[문제 1], [문제 2] : 주 규정의 텍스트를 정확하게 구현해 낸 수험생들이 주어진 배점을 안정적으로 획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반면 본인의 방식으로 풀어 쓰거나 주 규정 및 제외 규정의 순서·배열을 혼동한 경우 점수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문제 3] : 호해설서 비중이 높아 대다수 수험생이 점수 획득을 포기한 문제입니다. 물음 1의 '순도 기준'은 정확하게 기술한 수험생은 없었으며, 일부의 내용이라도 언급한 수험생도 극소수였습니다. 다만, 해설서 총설 영역인 물음 2의 '불순물'과 관련해서는 과반수 이상의 수험생이 불순물의 종류를 어느정도 기술하여 일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 4] : 주 규정을 묻는 물음 1은 정확하게 구현한 학생이 배점을 획득한 반면, 호해설서를 요구한 물음 2는 대다수의 수험생이 물음 1의 주 규정을 토대로 유추하여 작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부 부분점수 획득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3. 총평

올해 시험은 호해설서라는 지엽적인 파트가 많은 부분을 차지했지만, 그 외의 문제는 단순 암기 테스트 형식의 문제로 난이도 자체는 높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런 형태로 시험이 출제되다 보니 이번 시험의 실질적인 변별력은 세부 호해설서를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가가 아닌, 기본 주 규정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할 수 있는가에서 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4. 향후 수험 전략 제언

1. 시험 형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관세율표 학습의 절대적인 기본은 '통칙·주·호'입니다. 단순 암기형이든, 응용형이든 문제가 어떻게 나오더라도 결국 가장 많은 배점이 주어지는 근거는 통칙, 주, 호입니다.
2. 모든 규정과 4 단위 호를 완벽하게 암기할 수는 없습니다. 평소 자주 출제되는 파트의 핵심 규정을 최우선순위로 두고 중심 뼈대를 세운 뒤, 그동안 미출제되었거나 기출 비중이 낮았던 소외 구역의 규정들까지 구조를 세우고 범위를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주요 규정은 반복을 통해 점진적으로 완성도를 높여가고, 그 외의 규정은 흐름을 잡아가며 보완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3. 올해 호해설서가 다수 출제되었다고 해서 방대한 해설서를 대비하려는 학습은 지양해야 합니다. 우선 과제인 기본 법령 학습에 충실한 뒤, 이후에 수험학적 여유가 생기면 핵심 총설 등 필요한 부분을 추가 정리할 수 있으나, 호해설서나 지엽적인 총설 파트까지 무분별한 확장은 안 됩니다. 기본에 충실한 학습이 가장 확실한 합격 전략입니다.

결국 합격을 위해서는 수험생이라면 기본적으로 해내야 하는 수준을 먼저 만들어야 합니다. 범위의 확장은 그 이후입니다.
